월드컵 시청 '블랙아웃' 사태 오나

SBS, 유료방송에 추가 송신료 요구 움직임
협상깨지면 90%가 못 봐 ‥방통위 중재 관심

국민 대다수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 을 집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월드컵과 관련해 유료방송업계에 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를 제외한 약 90%의 가구가 월드컵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지난 12일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2014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매달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CPS)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가 이를 300~400원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거금을 주고 중계권을 따온 만큼, 월드컵 경기 중계는 현재 280원의 재송신료에 더해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SBS로부터 재판매를 통해 중계권을 확보한 KBS와 MBC도 SBS와 유료방송 업계 간 협상을 눈여겨 보고 있다. SBS가 유료방송 업계와의 협상에서 추가 재송신료를 확보할 경우 KBS와 MBC에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그동안 스포츠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경기를 재송신하면서 추가 요금을 낸 사례는 없었다며 황당해 하는 입장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를 위해 지불한 수백억원의 중계료를 유료방송 업계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할 월드컵 경기 중계가 상업적인 협상에 의해 시청자에게 부담을 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보편적 시청권을 들어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6.8% 수준이므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전송이 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상파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SBS가 독점중계권을 무기로 유료방송 업계에 저작권 행사를 주장하며 재송신료 관련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료방송 업계는 추가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방송을 끊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잇따른 공문 공방 속에 협상요구는 없던 일이 됐었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 … 훈풍 부나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 G2발 훈풍 덕분에 22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7.26포인트(0.36%) 오른 2015.59로 마감해 지난 9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2015.14)을 뛰어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한편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문제는 책임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사가 KBS 1TV와 EBS만을 의무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BS 2TV, MBC, SBS 등에 대해서는 재송신 비용을 별도 협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법적 다툼은 물론 블랙아웃(방송 중단) 사태로 시청자 피해사례도 속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남경필 새누리당 전 의원이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은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문제는 새로 구성된 방통위 3기가 매듭지어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라며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이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새 총리 안대희 내정… 국정원장·안보실장 경질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새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각 개편을 할 계획이다.

한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이날 전격 수리됐다. 사의는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김민준기자 mjkim@

안대희 신임 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비서실장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등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연합뉴스

'차떼기' 수사 국민검사 명성

지명 직후 회견… "대통령 보좌 국가개조 헌신"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찰과 법원을 두루 섭렵하고,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 작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일명 '차떼기 수사' 등을 통해 '국민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195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안 후보자는 중운중과 경기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만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과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25살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다.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의 간판으로 안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강직한 검사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 그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출범 후 최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로부터 2기 내각의 제청을 받아 조각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얼어버린 정부 신뢰와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총리 지명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등 혁신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헌법이 명한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총리후보 내정자 안대희 프로필

독성물질 월드컵 용품, 규제 없나?

기자 수첩
김학철 <생활경제부 기자>

나이키·아디다스·푸마의 월드컵 용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그린피스는 현재 시판 중인 이들 브랜드의 축구화·유니폼·용품 등을 조사한 결과 환경호르몬 등 독성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김혜림 그린피스 선양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두 브랜드는 전 세계 축구 용품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월드컵을 아름다운 축제로 만들고자 하지만 제품 생산방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 취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공인구로 사용될 브라주카를 비롯한 골키퍼 장갑 등에서도 유독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푸마는 자사 제품이 모든 법적 준수 사항을 따랐다는 공식 성명을 22일 내놨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럽 연합에서는 축구 장갑과 축구화 같은 제품에 프탈레이트 사용 규제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산업부의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아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서만 0.1% 이하로 규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제가 없으니 준수할 사항도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조차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지속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재외국민 '여행경보 신호등제'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의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데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 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정파간 타협 실패

●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언한 지 사흘째인 22일 각 정파 간 타협에 실패했다며 쿠데타를 선언했다.

쁘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TV 방송을 통해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파 간 회의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며 "군과 경찰이 전국의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 개성공단 방문

●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기업인들이 23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통일부는 올해 주한대사 등 노르웨이 대사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4명이 23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투자 검토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흰 장갑 유세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흰 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강북'·박원순 '강남' 민심잡기

'지하철 안전점검' 시작 선거운동 나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6시 나란히 '지하철 안전 점검'을 시작으로 6·4 지방선거 유세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시청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박물관역까지 이동하며 귀갓길 시민에게 인사하는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 후보도 최근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상왕십리역을 방문해 대합실 내 소화기와 소방전, 구호용품 보관함 등을 직접 살피며 정상 작동·정기점검 여부를 확인했다.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만큼 두 후보는 각각 자신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으며 적극적인 표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종로·용산·서대문·마포·중구 등 강북 지역들을 돌며 표몰이에 나섰다. 박 후보는 강남3구 방문으로 이날 일정을 채웠다.

정 후보는 "용산 사업은 서울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D등급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건물에 주민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 용산 개발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남역부터 국기원 입구까지 걸으면서 시민·노점상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현정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단둥에서 출항한 미등록 외끌이저인망 어선으로 21일 오후 8시40분께 서해 북방한계선 14.1km를 침범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6.5km 해상에서 꽃게 200kg, 잡어 30kg, 새우 20kg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측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유병언 부자 수배 전단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긴급히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병언 '2개월짜리' 구속영장

"도주 판단 증거인멸 우려" · 父子에 8천만원 신고 포상금

인천지법은 22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유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 대폭 늘려잡았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원대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반인물 등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경찰 역시 유씨 일가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다. 또 소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에게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진기자 rnkim@metroseoul.co.kr

北 연평도 초계함정 인근에 폭격

우리 함정 150m 인근에 떨어져 · 주민 대피령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쯤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적 포탄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도 즉각 5발의 함포를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고 다행히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

군은 북한이 이날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포탄은 포격 당시 물기둥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함정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오후 6시 20분부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복귀토록 했고 주민들도 긴급 대피시켰다"면서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30분 인천시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앞서 북한은 최근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측 어선단 속정 1척과 경비정 2척에 대해 지난 20일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비난하면서 남한 함정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바 있다. /서승희기자 sh@

'붕괴 진행' 구역에 실종자 잔류 추정

'선체 절단은 마지막 수단'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내 붕괴 진행 구역에 실종자 상당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승객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남은 실종자 16명이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층은 붕괴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4층과 5층 승객 잔류 추정 구역에 이달 초부터 선체 약화가 진행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한 뒤 수상 크레인 등 장비로 장애물을 치우고 진입할 경우 그 기간에 기존의 잠수 수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난 뒤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

"마지막 한명 책임지는 나라 살고 싶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호소

유경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2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아껴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된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세월호 대참사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남해안 신물류 동맥 부산항대교 개통 부산과 경남 거제·울산을 최단거리로 잇는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 구간인 부산항대교가 22일 개통됐다. 부산항대교는 남구 감만동에서 부산항을 가로질러 영도구 청학동에 이르는 해상교량(길이 3330m, 너비 18.6~25.6m)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길이 2768m)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한다. /연합뉴스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되나

정책포럼 잇따라… 서남수 장관 "검토할 만한 과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을 주제로 국책 연구기관이 잇달아 포럼을 열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 본원에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방안 탐색'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수능 영어 과목 평가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발표(이범민 서울대 교수)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의 정당성을 알리는 자리였다면 교육과정평가원은 좀 더 이를 구체화했다.

강규한 국민대 교수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시 정책적 고려사항'을, 시기자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기획분석실장이 '국내 절대평가 사례 분석-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김태준 성신여대 교수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심화했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은 교육당국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 도입 논의는 현재와 같이 줄세우기식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성매매 알선 '포주'가 여대생

학비를 벌려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포주 노릇을 한 스무 살 여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오전 9시30분께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오피스텔 마사지 장소로 급습했다. 인터넷 등에서 예약이 이뤄지는 부산서 중구의 모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검찰조사 결과 포주는 부산의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세 A씨였다. 그는 남성과 성매매를 한 동갑내기 19세와 인터넷에 마사지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살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친구에게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윤다혜기자

대형마트 절반 청소년에 술 판매

서울시내 대형마트 절반가량이 술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2013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 대형마트 62곳 가운데 53.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 마트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뒤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7일간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인이 2인1조로 팀을 이뤄 마트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트의 41.9%는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6.5%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했고, 51.6%는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시는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율은 2012년 8월 64.6%에서 지난해 53.2%로 떨어졌고 나이 확인 비율은 49.8%에서 51.6%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장선윤기자

"속도계 바늘 고장, 차량교환 사유 안 돼"

차량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하자'를 이유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오모(45·여)씨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벌에서 2010년형 BMW 528i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소송 수행은 코오롱글로벌) 측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현준기자

28기 WFK청년봉사단 선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강지운(26)·김나영(36)·양지혜(23)·이육점(49)씨가 제28기 WFK청년봉사단에 선발돼 다음달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몽골로 파견된다.

'청년, 세상을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8기에는 12개 팀 총 369명의 대학생 및 교(직)원이 선발돼 내달 라오스·몽골·베트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탄자니아·필리핀 등 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 시대 올해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궁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배 제14주택·신반포궁전 재건축 통과

서울시가 서초구 방배 제14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제1종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2만7460㎡(약 8300평) 규모의 구릉지다.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 최고 12층 이하 아파트 16개 동으로 임대 소형주택 17가구를 포함한 435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이 심의됐다.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와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승인됐다. 반포동 65-1번지에 위치한 신반포궁전아파트는 1984년에 3개 동 108세대로 건축됐다. 이번에 소형 임대주택 41세대를 포함해 총 253세대, 용적률 300%, 최고 28층 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당산동 91번지에 있는 유원제일1차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기존 6개 동 360세대 규모에서 소형 임대주택 34세대를 포함해 총 434세대, 용적률 277.32%, 최고 25층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세웠다.

/행정2기자

서울, 읍면 사교육비 두 배

서울과 '읍면' 단위 지역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9000원으로 읍면지역 학생(14만7000원)의 2.23배였다.

지난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개 광역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5000원, 중소도시는 23만8000원이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다.

/윤다혜기자

강동구, 벼룩시장 개최

서울시 강동구가 오는 24일 상일동 어울마당에서 '아이 옷 나누기 특집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이번 벼룩시장은 구립·민간 어린이집들이 대거 참여해 유아동 의류 및 잡화, 장난감 등 다양한 용품들이 총 48구역에 걸쳐 판매될 예정이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 지원

서울시 관악구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급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이다.

구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 구로구가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신세계 I&C를 방문해 모바일앱 개발 프로젝트 업무 체험, 진로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하게 된다.

metro Russia

metro Brazil

metro Nicaragua

metro France

dos brasileiros fez por impulso neste ano

브라질 국민 절반 이상이 충동구매

브라질도 충동 구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민의 52%가 최근 3개월 간 충동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브라질 소비자 신용보호 기관에 따르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옷(29%), 신발(19%), 전자제품과 휴대전화(18%) 순이었다. 여성은 주로 의류(33%)와 신발(19%)을, 남성은 휴대전화(29%)와 의류(24%)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res podrán antar en el trabajo

"모유 수유 시간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 산하 '더 나은 일자리' 니카라과 지부가 최근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근무 중 모유수유 시간의 보장이 가이드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조직 관계자는 "니카라과에는 50% 이상의 수공업 노동자가 여성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 아이를 둔 엄마로, 가이드북은 여성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기능 운동 '크로스핏' 열기 후끈

고강도 기능 운동인 '크로스핏'(Crossfit)이 프랑스에서 인기다.

크로스핏은 전반적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프랑스 북부도시 릴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토미 트로에 대표는 "몸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크로스핏을 익히기 위해 찾아온 사람 중엔 20년 간 한번도 운동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스핏은 도전적 성격보단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특징이 있다. 약 15분간 짧고 강하게 운동을 한 뒤 몸 상태에 따라 동작을 반복한다. 적용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트로에는 "크로스핏은 특히 도시인에게 좋은 운동이다. 요즘 사람들은 일에 치여서 살고 집에서도 육아로 인해 운동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크로스핏은 단 30분이면 최대치의 운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고 결과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은 자신들이 개발한 컨셉을 바탕으로 릴에 크로스핏 센터를 열었다. 매번 프로그램 신청자가 몰려 현재 체육관은 확장공사 중이다.

토미 대표는 크로스핏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 대해 "트레이너를 14년간 해왔지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인의 뜨거운 호응에 리복은 세계적 크로스핏 강사 두 명을 다음달 23일 센터로 초대할 예정이다.

/줄리안 뷔뤼리에 기자
정리=김주리 인턴기자

무법질주 NO! 바이크 축제 눈길

미녀 치어리더·공중회전 묘기 시선 집중… 교통안전 경각심 높여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시 참새언덕에서 바이크(오토바이) 축제 '모토레또'가 개막됐다. 이 축제는 도로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열린 것. 축제에는 독특한 복장의 바이커와 미녀 치어리더, 바이크 묘기단 등이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개막과 동시에 수 십대의 바이크가 참새언덕 도로를 달리는 장관이 펼쳐졌다. 참가자 안드레이 스비타일로는 "멋지다! 매우 만족스럽다"며 "몇 차례 연습하지 않았지만 모두 멋진 대열을 만들어 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도로 위 안전이 바이커 한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우리(바이커)는 안전하게 주행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며 "빈번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많은 바이커들은 도로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개성만점 복장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큰 키에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한 여성은 인디언 복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바이크 퍼레이드 도중 구경꾼은 물론 퍼레이드 참가자도 '미녀 인디언'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길 옆에 바이크를 세우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특설 무대에서는 바이커들의 아찔한 프리스타일 묘기로 관중을 매료시켰다. 선수들이 바이크와 혼연일체가 돼 공중회전을 하자 관중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축제의 꽃은 모스크바 예술산업대학 치어리더들이었다. 흥겨운 멜로디가 나오자 치어리더들은 역동적인 안무로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또한 축제에는 헬멧을 비롯해 화려한 디자인의 바이크 용품도 전시됐다. 트레딩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1일 클래스'를 통해 축제 참가자들은 자신의 헬멧을 무료로 꾸밀 수도 있었다. 가장 아름답게 헬멧을 꾸민 참가자는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루슬라나 카로오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2015.59 (+7.28)	코스닥	548.75 (+1.98)
금리	2.85 (+0.01)	환율	1024.00 (-1.50)

뉴스&뉴스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전단
22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모델들이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전단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우리금융, 분할 재상장

● 우리금융지주의 분할법인인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가 22일 유가증권시장에 분할 재상장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는 지방은행 부문을 인적분할해 KJB금융지주와 KNB금융지주로 상장됐다. 존속회사인 우리금융지주도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 변경 상장했다.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이들 3개 지주사는 오는 8월 각 은행과 합병해 다시 변경 상장될 예정이다.

/박이은기자 x lee@

"암 연구 더 수월해진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박종철 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 교수 연구팀과 이현주 지스트(GIST)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암 유전자에 특화된 검색엔진 '온코서치(OncoSearch)'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온코서치는 생물학 및 의학 연구 문헌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메드라인'에 탑재된 300만 건에 육박하는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연구 문헌에서 유전자의 발현량 변화, 유전자 변화에 따른 암 상태 변화를 기술하는 문장을 찾아낸다. 암은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들 유전자의 변화와 암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어 암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제임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세찬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952-2100
독자센터	(02)721-9711

2005년 5월 3일 등록 서울특별시 서울아00030

올 뉴 카니발 "확 달라졌다"

4열 팝업 싱킹 시트 적용해 공간활용성 높여
기아자동차 내달 출시 … 가격 2940만~3640만원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이 22일 공개됐다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22일 W서울워커힐호텔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 등을 대상으로 6월 출시 예정인 올 뉴 카니발(프로젝트명 YP)을 공개했다.

이삼웅 기아차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뉴 카니발은 내외장 디자인, 차체 구조 및 안전성, 공간활용도, 편의사양 등 차량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이뤄낸 차"라고 말했다.

올 뉴 카니발은 기아차가 지난 2010년부터 프로젝트명 YP로 개발에 착수, 52개월간 총 개발비 3500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차체는 전장 5115mm, 전폭 1985mm, 전고 1740mm의 크기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15mm, 전고는 40mm 줄였다. 특히 축거는 3060mm의 크기로 기존 모델보다 40mm를 늘렸다.

실내는 기존 1열 중앙 보조시트를 없애고 노트북이 들어가는 대용량 센터 콘솔을 적용했다. 기어 노브를 승용차처럼 운전석 시트 옆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4열에 팝업 싱킹(Pop-Up Sinking) 시트를 적용해 최대 546ℓ의 적재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시트 구성을 기존 3열에서 4열로 조정하면서 1~3열 독립 시트를 적용했고, 차량 중앙 통로를 확보해 승하차가 쉽다. 1열 발밑 공간은 14mm 늘어났으며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접으면 3열을 뒤로 밀 수 있다.

올 뉴 카니발에 탑재된 R2.2 E-VGT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kg.m로 기존 모델 대비 각각 2.5%, 1.1% 성능이 향상됐다.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5.5% 향상된 11.5km/ℓ다.

올 뉴 카니발은 초고장력 강판(AHSS, 인장강도 60kg급 이상)을 기존 모델보다 대폭 확대 적용(52%)했다. 충돌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액티브 후드 시스템, 6에어백 시스템(운전석, 동승석, 전복감지 사이드&커튼)을 기본 적용했다. 이를 통해 차체 비틀림과 굽힘 강성이 기존 모델에 비해 각각 74%, 42% 강화됐다. 또한 보행자 머리 상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을 동급 차량 최초로 기본 적용했다.

기아차의 판매 목표는 연간 4만대다. 미국에서는 올 하반기에, 그 외의 지역은 내년 초에 판매된다.

/장은희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삼성 '브라질 월드컵' 이벤트 삼성전자가 다음달 열리는 전세계인의 축구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TV 할인혜택 등 숫 리와 여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울트라북' 국내 비싸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울트라북이 해외보다 20%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9~11월 한국, 영국,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국내외 10개 브랜드 780개 제품의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울트라북은 태블릿PC처럼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면서도 기존 노트북 컴퓨터의 성능을 갖춘 가볍고 얇은 신개념 컴퓨터다.

삼성전자 울트라북의 국내 판매가격을 100(163만2000원)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판매 가격은 77.6(126만7000원), 대만 83.0(135만5000원), 미국 77.7(126만7000원), 영국 85.0(138만6000원)이었다. 환율은 지난해 11월7일의 수치가 적용됐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울트라북은 마우스·가방 등 기타 부속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애프터서비스(AS)는 유료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조사대상 6개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판매되는 국내외 브랜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한국이 두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가격이 100(113만3000원)이라고 봤을 때 일본 110.6(125만2000원), 중국 106.4(120만5000원), 대만 94.7(107만3000원), 미국 111.9(126만7000원), 영국 114.7(129만9000원)이었다.

/세종=유주영기자

6·4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쏟아져

수도권, 개발계획·전월세 대책 … 지방, 균형발전 쟁점

6·4 지방선거가 임박하며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각종 개발계획 및 재개발·재건축,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논의와 주거복지·전월세 대책 등 다양하다. 반면 지방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 투자와 도청 으로 인한 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같은 큰 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된 공약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의 가장 큰 쟁점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문제다. 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 △임대주택 공급확대 △경전철 사업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 등이 핵심 쟁점이다.

천안·세종시는 경부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당 후보들은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 충북 오송이 아니라 천안이 되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쟁점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1호선만으로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못해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건설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동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전남·광주의 경우, 호남선 KTX 정차역에 대해 후보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남선 KTX 전용선로는 2014년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1단계로, 2017년 광주송정역~임성리역 구간을 2단계로 건설할 예정이다.

/김두석기자 kimdt@

국공립어린이집 품은 아파트, 젊은 맞벌이부부에게 최고 인기

도화지구 누구나 집 임대공급 5.27~28 실시

도화지구 누구나집은 만19세 이상 인천시민이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소유여부 관계없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많은 임대청약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앞에 계획되어 있어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도 갖추고 있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달 27~28일 이틀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5월말 당첨자 발표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약시 관심 임대청약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별도 청약금은 없으며 세대제한 없이 1인 1청약이 가능하다.

누구나집 관련 문의는 032-862-9500으로 하면되고 사이버모델하우스(www.nuguna-house.co.kr)에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청약일정

구 분	접수일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동호수 배정	당첨자 계약	예비당첨자 계약
우선 공급	2014. 5. 27(화)~28(수) 10:00~16:00 모델하우스 현장접수	2014. 5. 28(수) 20: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2014. 5. 29(목)~30(금) 10:00~16:00	2014. 5. 31(토) 10:00~16:00
일반 공급				예비당첨자 농후발표 5. 30(금) 20: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롯데百 '몽블랑 와치 페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몽블랑 SHHS 위스 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 COMES TO YOU 와치 페어'에서 모델들이 1억원 상당의 '빌르레 엑소 투르비용 라트라퓨탁' 등 시계 4점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모이니 아파트 잘 팔리네~

건설업계 계열사 대상 마케팅 효과 톡톡

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계열사 직원은 같은 그룹에서 짓는 아파트인 만큼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일반 수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 의욕도 높기 때문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열사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삼성물산이 꼽힌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 분양에 앞서 계열사 임직원 초청설명회를 진행하고 삼성 임직원과 관계자들의 계약까지도 연결됐다.

작년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분양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도 계열사 마케팅의 효과를 본 사례다. 삼성물산 본사를 비롯해 삼성테크윈, 삼성SDS, 삼성DEI, 삼성생명 등을 돌며 단지를 홍보,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용인에서 분양 한 달만에 100% 완판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도 분양을 앞두고 그룹 임직원을 예비 수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서울 강북과 강남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직원을 대상으로 분양 설명회에 나섰다. 이어 29~30일에는 서울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삼성, 현대차 그룹 임직원 2800여 명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선옥기자 pso1@

엘니뇨로 농산물 펀드 인기↑

올 여름 극심 예상… 원자재 시장에 촉각

올해 여름 17년 만의 '슈퍼 엘니뇨'가 올 수 있다는 소식에 농산물 펀드 등 농업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앞둔 원자재 시장의 눈은 온통 엘니뇨에 쏠렸다.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1년 넘게 2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 기간이 길어지면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 작황에 악영향을 준다.

강유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여름이나 가을에 지난 1997~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슈퍼 엘니뇨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두와 커피, 원당, 구리, 니켈, 천연가스 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세계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나빠져 농작물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오는 하반기 농산물지수펀드나 원당, 소맥에 투자하는 펀드, 농산업 관련 펀드가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농산물 펀드의 수익률은 올 들어 선조한 흐름을 보인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1일 현재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농산물 펀드 15개는 연초 대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올 들어 성과가 가장 높은 펀드는 삼성KODEX콩선물(H)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콩-파생형]'으로 연초 대비 15.66%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BNPP애그리컬쳐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파생형](종류A)'와 '산은짐로저스애그리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채권-파생형]A', '우리애그리컬처인덱스플러스특별자산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C 1' 등도 12~13%대 성과를 냈다.

섹터별로도 농산물 펀드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 10.34%로 가장 높았다. 금펀드(7.66%), 원자재펀드(4.59%), 원자재주식펀드(3.30%) 등 원자재 관련 상품이 전반적으로 모두 양호했다.

박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높아진 날씨 변동폭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해 농산물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KB금융 내부통제 부실정황 포착

금융당국이 KB금융내에서 갈등이 빚어진 과정에서 일부 내부통제가 부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과 20일 은행검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검에 들어간 데 이어 검사 인력을 추가로 급파하기로 했다.

현재 7명 정도가 특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KB금융 사태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등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인력을 10여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KB금융 갈등 사태를 우려하며 엄정하게 검사해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등 부실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기존 검사 인력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헬로tv '방송 꿈나무' 키운다

CJ헬로비전이 한국잡월드에 어린이 직업 체험관 '헬로tv방송국'을 열었다.

헬로tv방송국은 어린이들이 미디어 직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체험 학습 프로그램. 1대 1 맞춤 미디어 교육, 생방송 뉴스 제작, 전문 미디어 지식을 통한 모니터링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미래 방송 꿈나무는 이곳에서 멘토에게 1대 1 전문 교육을 받고 5~8명이 한 팀을 이뤄 큐 사인부터 클로징 멘트까지 어린이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뉴스를 제작한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최근 방송인을 꿈꾸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실전과 연계된 양질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CJ헬로비전은 한국잡월드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h6/14@

선거방송 보며 후보자 정보 확인

케이블TV방송사 티브로드는 6·4지방선거를 맞아 후보자 토론회에 케이블방송 업계 최초로 실시간 채널 연동형 양방향 데이터 방송을 실시한다.

과거 지역 유권자는 기존 TV토론회 또는 연설방송, 선거공약집 등을 통해 일방향으로만 후보자 정보를 접했다. 하지만 이번 티브로드의 실시간 채널 연동형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통해 TV시청 중 궁금한 후보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도가 기대된다.

특히 티브로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각 자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방송 솔루션 개발을 완료, 데이터 방송 화면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토론회 화면이 사라지지 않도록 2중 화면 구조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브로드는 서울지역 방송 권역인 총 7개 SO(종로·중구, 서대문, 동대문, 도봉, 강북, 노원, 광진, 성동, 강서)에 10개 지역 자치구에 출마하는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각 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3시 방송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G유플러스는 LTE망 통신단말기와 주변기기를 차량에 탑재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 차량관리의 효율성 및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사물인터넷 일상에 들어오다

LG U+, BIS서비스… 버스 정보 실시간 제공

사물과 사물 간 통신을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이 실생활로 접근하고 있다. 초기 원격검침 등에서 사용되던 사물인터넷이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할 시점을 알려주거나 무인비행로봇인 '드론'으로 결혼식 장면을 생중계해주는 등 실생활로 접근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대표적인 IOT서비스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접해본다.

◆"버스 언제오지?" 걱정 끝!

요즘 버스 정류장을 보면 도착 예정 버스 차량번호와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버스위치관제서비스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상당수 버스운송업체들이 운영중이다.

LG유플러스는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적용해 전국 시외버스와 서울시 마을버스, 금호고속, 전국고속버스 등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영하고 있다.

BIS는 버스 내부나 외부에 LTE 모뎀을 탑재해 인근에 위치한 정보센터 및 정보터미널(BIT)에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 위치 특화 서비스다.

버스정보센터는 LTE망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버스 운행 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없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PC 웹 화면에서 △24시간 버스 운행관리 △배차 관리 △운행 이력 분석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각종 사고시 긴급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버스 이용자와 시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버스 도착 예정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기간에 LTE 통합차량 관제 시스템을 단독 구축했다. 또 지난해 4월 세종특별시 시내버스 전체 55대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36대에 이를 설치해 버스 이용객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세종시 LTE 버스 관제시스템은 버스마다 설치된 LTE 버스 단말기를 통해 운행 상태, 속도, 위치(GPS) 등의 차량정보와 출발, 도착, 출발정보, 급출발, 급제동, 과속, 앞뒤차 배차정보 등의 운행정보를 세종시 교통관제센터에 LTE망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김태균기자 ksc@metroseoul.co.kr

올레tv가 자사 영화 월정액 서비스 '프라임무비팩'의 가입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레tv 제공

올레tv '프라임 무비팩' 가입자 3만 돌파

KT IPTV서비스 '올레tv'의 영화 월정액 서비스 '프라임 무비팩' 가입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

올레tv는 지난달 출시한 프라임 무비팩 가입자가 지난달 12일 1만명을 달성한 후 출시 50여일 만인 21일 3만명 가입자를 유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를 추구하는 프라임무비팩은 현재 1000만 관객 영화 '변호인'을 비롯해 '남자가 사랑할 때' 등 최신 한국영화와 아카데미 3관왕을 달성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작품상을 수상한 '노예 12년' '캣칭 파이어' 등 다양한 영화를 제공 중이다.

프라임무비팩은 월 1만4900원(부가세 별도) 월정액 상품으로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3100편에 이르는 작품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다.

/서승희기자

정철길 사장, 글로벌 경영보폭 확대

두바이 지사 방문 — 중동·북아프리카 진출 타진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SK C&C가 이번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다.

SK C&C 정철길 사장은 지난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지사를 방문했다.

정 사장은 지사 직원들과 함께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시장동향, 국가별 영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 사장은 "올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선제적 사업 발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디에서도 고객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지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SK C&C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콘트롤타워인 UAE 두바이 지사의 역할 강화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SK C&C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3월 중고차 온라인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에스케이엔카닷컴'을 설립, 호주 카세일즈닷컴에 해당 법인지분 49.9%를 1175억원에 매각하며 글로벌 중고차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상해 운봉자동차회사와 중고차 매매 전문 합작회사 '상해 운봉엔카 중고차 경영서비스 유한회사'를 설립, 중국 오프라인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분기에 535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5238억원) 중 해외에서 10.2%를 올리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ly0403@

정철길 왼쪽 SK C&C 사장이 20일 UAE 두바이 지사에서 현지 구성원들과 함께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분석 및 사업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K C&C 제공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종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감감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김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현우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편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교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맘에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한국기업평판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다차원적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리니지2 새로운 전성기 구가할까

'바츠해방전쟁' 10주년 '클래식 서버' 도입
엔씨소프트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국내 온라인 게임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인 '바츠해방전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바츠해방전쟁은 엔씨소프트의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서 'DK혈맹'이라는 이름의 특정 길드(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의 모임)가 폭정을 일삼자 다른 이용자들이 이에 맞서 약 4년간 혁명 전쟁을 벌여 승리한 사건이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형 권력에 대항해 자유를 찾은 '온라인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회자된다. 논문, 서적, 웹툰, 예술작품으로 재생산되는 등 온라인 게임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에서 2004년부터 시작된 바츠해방전쟁 10주년을 맞아 21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바츠해방전쟁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과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엔씨소프트는 바츠해방전쟁 당시의 영상 등을 공개하고 이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손도장(핸드프린팅)을 찍는 순서 등을 마련했다.

이성구 엔씨소프트 글로벌라이브사업1실장은 "한국 온라인 게임사의 큰 획을 그은 바츠 용사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 고객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엔씨는 리니지2의 '클래식 서버'를 최초 공개했다.

리니지2 개발을 총괄하는 남궁곤 PD는 서버를 소개하면서 리니지2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했다. 클래식 서버는 리니지2 '카오틱 크로니클' 시대의 과거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현한 특화 서버다.

클래식 서버는 고객들이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시기의 '가장 리니지2스러운' 가치를 지키고 재현하려는 엔씨의 의지다.

클래식 서버는 28일 오픈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2 공식 홈페이지(lineage2.play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이베이도 개인정보 해킹

옥션·G마켓과는 무관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의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는 21일(현지시간)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1억4500만명 회원 전원에게 암호를 바꾸도록 요청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해킹이 발생한 시기는 올해 2월말과 3월초이며 해킹된 정보는 고객 이름, 암호화된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이다. 신용카드 등 금융 정보는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신용카드 정보나 금융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별도 보관된 덕분이라고 이베이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유출로 이베이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거래가 이뤄진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베이 회원들은 패스워드 변경 페이지(www.ebay.com/reset)에서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 이베이와 똑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이베이와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매대행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이베이 해킹사건은 옥션·G마켓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착한 게임 만나러 오세요"

23일 굿게임쇼 코리아

놀이학습·재난 대처법 체험 가능

게임으로 수학·과학·영어 등을 배우고 재난 상황 대처법도 익힌다.

게임의 이같은 순기능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학회 등과 함께 23~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굿게임쇼 코리아 2014(GOOD GAME SHOW KOREA 2014)'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회를 맞이한 '굿게임쇼 코리아 2014'는 국내외 유명 게임사들을 포함한 총 301개 기업이 참가한다. 'Play and Grow'(굿게임, 세상을 키우다)라는 주제 아래 전시·체험관, 주제관, 기획전시관, 해외국가관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폭력성·사행성·선정성을 최소화한 기능성게임을 비롯해 교육용 로봇, 스마트 콘텐츠, 가상 증강현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동작인식 기기인 'X박스360 키네트'를 활용한 체험형 놀이학습, 마이크로 피트니스 등을 선보이며 SK텔레콤 전시관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교육용 로봇 '알버트·아띠'를 만날 수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의 '119소방안전체험장' 부스에서는 각종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세대별 놀이터의 현장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굿게임쇼 코리아 201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odgameshow.or.kr/exhibit/index.a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스타워즈7 '돌비비전'으로 즐긴다

영상부문 진출 선언 국내 제조사와도 협의중

내년도 개봉 예정인 SF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7'를 돌비비전으로 더욱 선명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비코리아는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영화·TV 제조업계가 보다 사실적인 밝기와 색상, 명암을 지닌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돌비 비전'을 선보였다.

돌비 비전을 적용하면 같은 영상 장비로 촬영한 콘텐츠라도 화질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일반TV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는 구름 모습이 돌비비전을 적용한 TV에서는 선명한 색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색공간의 손실이 없어 살아있는 꽃을 직접 보는 듯한 밝기·명암·색상을 즐길 수 있다.

김재현 돌비코리아 대표는 "스타워즈 7번째 에피소드에 돌비비전이 적용된 영상이 개봉될 예정"이라며 "일본 샤프와 중국 TCL 등이 올해 안에 돌비비전을 적용한 TV를 선보일 예정이고 국내 제조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관절 및 인대, 신경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및 도수 치료로 끝!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골프 엘보우) 및 자주 넘어지면서 생긴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제와 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 결국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고민하던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외측 건초염 및 좌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S씨를 치료했다. 또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해 특수 인대 주사로도 치료를 실시했으며 치료 후 S씨의 통증은 호전됐다.

이처럼 4년 전부터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시행했던 유전자 줄기세포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통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승주(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배우 이종수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또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자가혈 줄기세포 인대증식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조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레이저 초음파 치료, 인대 및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2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치료 제공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에 따라 관절 및 인대 질환은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한다. 허리 또는 목 디스크 환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했다.

아울러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 치료, 그리고 디스크나 관절 질환으로 약화된 관절, 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와 관절을 안정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여의도역, 교대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클리닉을 개설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와 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425-2900)

/황재용 기자

'삐끗' 통증 자칫하면 큰 병 부른다

허리·손목·발목 등 응급처치 후 병원 찾아야

기온이 높아지면서 미뤘던 이사를 하거나 골프·등산 등의 야외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방심했다간 '삐끗' 하고 발생하는 뼈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 시즌, 손목 염좌 조심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조심해야 한다. 짐의 무게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목 염좌가 발생하면 손목이 붓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큰거림이 더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깊어진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손상된 부위의 관절을 부목으로 고정한 후 냉찜질을 2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골프, 스트레칭이 먼저!

골프 마니아들이 기다리던 계절이 왔지만 지금이 더 조심해야 할 시기다. 준비운동 없이 필드에 나서거나 급격하게 운동량을 늘리면 허리 부상을 피하기 어렵다. 골프의 스윙이 한 방향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골프를 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야 하며 스윙 시에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리를 구부려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등산 발목 부상 즉시 병원으로

등산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발목이다. 특히 하산 시에는 운동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속력을 내다 부상자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대부분의 등산로가 가파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균형을 잘못 잡는 경우에는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리는 발목 염좌가 발생하기 쉽다.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발목 부상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부상을 방치하면 반복적으로 삐는 현상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동헌 강북힘찬병원 과장은 "발목을 상습적으로 삐는 사람들은 발목 주위의 조직이나 힘줄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부상이 누적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미하더라도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metroseoul.co.kr

대웅제약, '미라클 마케터' 모집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라클 마케터(Miracle Marketer)' 프로젝트에 함께 할 재능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름다운가게 논현점 공동 설립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또 미라클 마케터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웅제약 마케팅 실무자와 팀을 구성해 아름다운가게 논현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대웅제약 임직원들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대웅제약은 프로젝트 완료 후 대웅제약 입사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CSR 프로젝트 활동인증서 및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JW중외제약, 기능성 음료 '4PM' 출시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이 신개념 포도당 기능성 음료 '4PM'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4PM은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오후 4시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 지친 몸과 정신을 깨워준다는 콘셉트로 개발된 제품이다.

또 카페인이 주성분인 기존 에너지 음료와 달리 포도당과 타우린 1000mg, 비타민C, 천연 과즙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포도맛과 레몬맛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회사는 편의점, 대형마트, 휴게소 등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칸 영화제, 세계적인 톱 모델 바바라 팔빈

카림 라만이 분석한 그녀의 레드카펫 뷰티 시크릿

로레알파리가 아름다움(BEAUTY)과 예술(ART) 발전의 결합을 위해 영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올해로 17년째 공식 후원하고 있는 '칸 영화제'를 비롯해 '베니스영화제'의 공식 파트너이자 공식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이기도 하다. 로레알파리는 이번 칸 영화제 기간에 로레알파리 모델들과 함께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영화제 후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장혜진기자 hours0404@metroseoul.co.kr

제67회 칸 국제 영화제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8번째 레드카펫에 로레알파리 글로벌 모델인 바바라 팔빈이 섰다. 올해로 벌써 3번째다. 그녀는 미니멀한 화이트 드레스와 레드 빛 스트레이트 헤어로 세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났다. 세계 톱 모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로 레드카펫을 압도했다. 바바라 팔빈의 메이크업 비밀은 로레알파리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림 라만(KARIM RAHMAN)이 낱낱이 분석했다.

"올해 칸 영화제 레드카펫 위 바바라 팔빈은 모든 색조 메이크업을 줄이고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에 집중했다. 깊고 선명한 눈매 표현을 줄 수 없는 새도우를 브러시를 활용해 연출했다. 브러시는 컬러를 가장 섬세하게 블렌딩 해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깔끔한 라이너와 함께 속눈썹을 풍성하게 연출해 세련되면서도 성숙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매혹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는 투명한 누드 톤으로 표현하고 입술은 본연의 컬러를 살린 누드톤 립 메이크업으로 완성했다."

바바라 팔빈(BARBARA PALVIN)

◆로레알파리 르 옴브르 꾸뛰르(5g, 2만2000원대)

미니멀한 모던시크룩부터 화려한 오뜨 꾸뛰르까지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4구 섀도우 팔레트, 바바라는 E1 베이지 프렌치 컬러를 사용해 깊고 그윽한 음영이 돋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로레알파리 수퍼 라이너 젤마틱 펜(0.3g, 1만5000원대)

선명하고 진한 리얼 젤 그대로 펜에 담아 쉽고 간편하게 또렷한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컬러 젤 펜 라이너. 바바라는 섀도우 컬러와 어울리는 딥 브라운 컬러를 활용해 그윽한 눈매를 연출했다.

◆로레알파리 컬러리쉬 모이스트 매트(5ml, 1만6000원대)

매트 립스틱의 세련된 질감과 선명한 컬러에 보습감이 더해져 오랫동안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싸주는 매트 립스틱. 바바라는 자연한 누드톤의 스테잉 선셋(C501호) 컬러를 선택했다.

해외 스타 셰프가 한 자리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컬리너리 아트@JW 진행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오는 31일까지 7명의 세계적인 셰프들을 초청해 특별 요리를 선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 '컬리너리 아트@JW(Culinary Art@JW)'를 개최한다.

먼저 24일까지는 리츠칼튼 도하의 카산 모하메드 압달라 셰프가 방한해 2014년 새로운 맛으로 주목받는 중동요리 '아라비안 나이트' 프로모션을 준비한다.

또 23일 일식당 타마도에서는 정통 교토요리의 대가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교토리타키기와 1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타키기 카즈오가 한국의 봄을 담은 스페셜 디너로 미각을 자극한다.

양식당 JW's 그릴에서는 스페인의 5성급 럭셔리 리조트 아바마 골프 앤 스파 리조트의 엘란즈 고로스티자가 셰프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중식당 만호에서는 리츠칼튼 홍콩의 셰프 푸만퀴우가 방문해 현지의 광동요리를 그대로 재현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신라스테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선봬

피크닉 즐기는 스위트 데이, 여성 위한 메이 퀸즈, 신라의 맛 경험하는 고메 에디션

SHILLA STAY

신라스테이(www.shillastay.com)는 날씨만 서울 도심을 벗어나 에버랜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스위트 데이'와 레이디스 패키지인 '메이 퀸즈' 그리고 신라의 맛을 주제로 한 '고메 에디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스위트 데이는 피크닉 세트와 함께 에버랜드로 나들이 갈 수 있는 커플용 주말 상품으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대인 2매 ▲서피스미스 피크닉 세트 2인용 ▲2인 조식 ▲객실 1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월 주말에 판매되며 가격은 19만원(세금 별도)이다.

메이 퀸즈는 여자친구들끼리 파티를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4인용 레이디스 패키지이다. 세련된 분위기의 바에서 JP 슈네 막송 카시스 와인 2병과 치즈 플레이트로 구성된 와인 세트를 즐길 수 있다. 4인 조식, 객실 2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판매되며 주중 42만원, 주말 31만원(세금 별도)이다.

고메 에디션은 신라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익스클루시브 패키지로 ▲2인 조식 ▲2인 석식 ▲바에서 즐기는 라 비에이유 페름 와인(부지탄 제공)과 모둠 치즈 세트 ▲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일까지 판매되며 주중 31만원, 주말 27만원(세금 별도)이다.

한편 신라스테이 역삼점은 올해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2016년까지 마포·서초·신대방·종로·서대문·울산·제주 등 10개 이상의 신라스테이가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예약 문의 02)2230-3000

/정혜선기자

틴트, 반짝임을 만나다.

25% 워터 포뮬러가 선사하는
입술 위 가벼운 센세이션!

Shine Caresse

로레알파리 샤인 카레스 글로스 틴트

무의도 등산 정상 전경과 소무의도 해변가 전경

바다가 생각날 때, 공항철도를 타자!

운서역·인천공항역으로 떠나는 바다여행

최근 다양한 놀거리가 많아져 사람들 사이에 '인천공항에 놀러간다'는 말이 생겨났다. 공항이 공항의 기능을 넘어 나들이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는 관광철도로 불릴 만큼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운서역과 인천공항역은 언제든지 섬과 바다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항철도의 명소 중의 명소다. 바다가 보고싶을 때 혹은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열차를 타고 바다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바다여행의 시작, 운서역

먼저 운서역은 장봉도와 신도·시도·모도로 들어가는 출발지다. 역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삼목선착장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장봉도는 긴 능선에 조망이 좋아 섬 여행지 중 으뜸인 곳이다. 해안가람을 구경하는 윤옥골~가막머리 해안 트레킹 코스와 해변과 숲길을 걷는 용암해변~한들해변 해안 둘레길도 조성돼 있다.

또 다리로 연결돼 삼형제 섬으로 불리는 신도·시도·모도는 풀하우스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관광지다. 트레킹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세 섬의 새로운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관광지로 급부상한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용유노선 떠나는 기점이다. 평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용유도로 가는 연계 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용유도로 이동할 수 있다.

용유 바다는 거잠포와 갯벌 체험장이 있는 마시안해변을 비롯해 선녀바위해변, 을왕리해변, 왕산해변으로 이뤄져 있다.

또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무의도는 하나개해변과 실미해변 등 두 개의 해변을 끼고 있다. 호룡곡산과 국사봉을 잇는 섬 산행 코스가 마련돼 있어 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실미해변은 썰물이 되면 영화 '실미도'의 실제 촬영지인 실미도까지 바닷길이 열린다. 게다가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의 아기자기한 섬 해안길 '무의바다 누리길'은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트레킹 코스다.

아울러 바다여행을 떠나기 전후 인천공항에서도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여행객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다국적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영화관과 사계절 아이스링크, 오픈카페, 선물가게 등이 즐비하다. 특히 여객터미널 중간 지점에 있는 밀레니엄홀에서는 매일 무료 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4층에 위치한 한국문화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인천공항의 명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버거킹…"뚱보 되고 싶다면 드세요"

와퍼세트 1개 열량 성인 하루치의 50%

"아직도 버거킹 드세요?"

버거킹의 와퍼세트가 국내 패스트푸드 대표 메뉴 가운데 가장 높은 칼로리로 소비자들은 '뚱보'로 만들어 여름철 다이어트를 원해한다면 먹지 말아야 할 1순위 제품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조사 결과 이 업체의 대표메뉴인 와퍼 세트(763g) 1세트만으로도 하루 성인 권장 열량의 절반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매출 규모 상위 5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최다 매출 메뉴 7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버거킹의 대표 상품인 와퍼 세트의 열량은 무려 112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인 남성의 하루 영양 섭취 기준(2200~2600㎉)의 43.2~51.0%에 해당하는 열량이다.

특히 버거킹의 이 세트메뉴는 비슷한 구성과 무게의 롯데리아 '핫즈버거세트(730g)' 열량 935㎉보다 187㎉가 더 높다.

'빌도보 조사단 업체'별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맥도날드가 5점 만점에 3.6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맥도날드는 서비스 체험(이용 과정의 만족도), 상품 품질, 이용 편의성, 시설과 환경, 가격, 서비스 운영 관리(쉬운 서비스) 등 6개 부문 중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체험, 서비스 운영 관리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업체는 파파이스로 전체 평균 3.54점보다 낮은 3.45점을 받았다.

/정영일기자 area@

"제철음식 레시피서 봄의 향기 느끼세요"

5월의 제철식품을 보면 식탁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지만 때이른 무더위로 어느새 쉽게 잊혀지게 됐다.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을 비롯해 바다에서 올라온 풍성한 해산물 등 따뜻한 봄볕을 담고 나온 싱싱한 제철 식품을 봄이 물러나기 전에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두릅숙회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85㎉ / 조리시간: 30분

[재료] 두릅 12개, 미나리 10줄기, 계란 2개, 홍고추 약간, 고추장 3큰술,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 깨소금 약간

1. 두릅을 손질한 후 살짝 데친다.
2.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홍고추는 씨를 빼고 굵게 채를 썬다.
3.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로 나눠 지단을 부친 다음 두껍게 채를 썬다.
4. 초고추장을 만든다.
5. 두릅에 지단채와 홍고추를 올리고 미나리로 묶는다.
6. 접시에 담아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매실장아찌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32㎉ / 조리시간: 30분

[재료] 매실·마늘 각 1kg, 소금 300g, 간장 1컵, 식초 1큰술, 통후추 5알, 흑설탕 약간

1. 마늘은 통째로 잘 씻어서 소금으로 간을 한 후 한 달 동안 재워둔다.
2. 삭힌 마늘은 겨내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은 후 매실 원액 2/3의 1을 넣어 마늘과 잘 섞는다.
3. 남은 매실은 즙을 내어 흑설탕을 약간 넣고 끓여 식힌 후 ②에 붓는다.
4. ③을 2일간 두었다가 국물만 따라내 끓여 식힌 후 다시 붓는다. (본 과정 3~4회 반복)
5. 20일 정도 지나면 먹기 좋은 장아찌가 된다.

◆풋마늘주꾸미볶음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48㎉ / 조리시간: 40분

[재료] 풋마늘 1대, 주꾸미 8마리, 당근·애호박·양파 각 1/4개, 기름 볶음용 약간, 고추장·조청 각 2큰술, 고춧가루·간장·청주·통깨 각 1큰술, 후춧가루 약간

1. 풋마늘을 씻어 4㎝ 길이로 썬다.
2. 주꾸미는 밀가루를 뿌려 박박 씻은 후 입과 먹물을 제거한다.
3. 당근·애호박·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분량의 양념장을 잘 섞어 주꾸미·채소와 함께 버무려 30분간 재운다.
4.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른 후 주꾸미와 채소를 넣고 타지 않게 고루 볶아 그릇에 담아낸다.

metro entertainment E

줄리엣을 향한 로미오처럼

정규 2집 '시즌2'로 돌아온 인피니트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룹 인피니트가 정규 2집 '시즌2'를 공개하고 제2막을 열었다. 2011년 '오버 더 탑' 이후 3년 만에 발매하는 정규앨범인 만큼 의미도 남달랐다. 마냥 무대를 즐기고 노래를 부르던 소년에서 음악에 감성을 담는 남자로 성장했다.

◆ 소년에서 남성으로

지난해 8월 국내 활동을 접고 11개월간 21개국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한 인피니트가 음악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이는 새 앨범을 통해 느낄 수 있다. 타이틀곡 '라스트 로미오'는 오케스트라 세션과 록 스타일의 음악이 화려하게 결합된 팝 심포니 장르의 음악이다. 여기에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멜로디가 귀를 관통하며 귀를 뗄 수 없게 만든다.

21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시즌2'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멤버 호야는 "기존 색깔은 유지하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이번 앨범을 통해 인피니트의 성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스트 로미오' 역시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가 돼 보겠다는 각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피니트는 그동안 활동을 '시즌1'으로 정의했고 '시즌2'에서 성숙함을 강조한다. 성규는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전 활동은 소년의 느낌이었다면 이번부터 성숙한 남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군무 댄스곡 대신 미디엄 발라드 '라스트 로미오' 로맨틱 매력 가득

여기에 올 여름 콘서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엘은 "솔로곡과 인피니트H·F 등 인피니트의 다양한 음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올 여름 콘서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피니트가 발표한 이번 앨범에는 신곡 13곡이 수록됐다. '라스트 로미오'를 비롯해 리더 성규의 솔로곡 '라이트', 우현의 솔로 자작곡 '눈물 감으면', 인피니트H(동우·호야)의 신곡 '열쇠'와 인피니트F(성열·엘·성종)의 신곡 '마지막이야'가 담겨있다.

◆ 새로운 변화 예고

일본과 대만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진행한 인피니트가 서울 무대에서 컴백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국내 팬 앞에서 '라스트 로미오'의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데뷔 5년차 인피니트의 새로운 변화를 직감할 수 있는 무대였다.

인피니트는 '메모리즈'로 쇼케이스의 포문을 열었다.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로 메인보컬 우현과 성규의 감미로운 보이스가 귀를 즐겁게 했다. 의상은 레이스 소재의 흰 수트를 착용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다. 로맨티스트로 돌아온 인피니트의 모습에 공연장을 찾은 5000여 팬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날 인피니트는 신보 수록곡 '메모리즈' '나란 사람' '라스트 로미오'를 불렀다.

공연 하이라이트는 '라스트 로미오' 무대였다. 록과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접목한 웅장한 댄스곡으로 드럼·베이스·기타 등 리얼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인피니트의 전매특허 칼군무도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각을 맞추기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집중했다. 골반을 돌리는 안무부터 등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살린 동작이 많았다.

성규는 "기존 안무는 남성적인 부분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중성적인 느낌을 담았다"면서 "마냥 남자다운 건 아니다. 여성스러운 부분이 늘었고 골반을 이용한 동작이 많다. 강약이 살아있는 안무"라고 설명했다.

/장병호기자 ww@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디자인/최송이

'트위터'는 지고 '블로그'가 뜬다

스타 파워블로거 숨은 재능 눈길
팬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채널로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일은 이제 필수가 됐다. 대부분의 스타는 트위터·미투데이·인스타그램 등에 짧은 글을 올릴 수 있는 SNS를 선호한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뽐낼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타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가수 아이비는 현재 총 방문자수 1400만 명의 패션뷰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는 지난 2012년 파워블로그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최근 아이비는 블로그 운영 경험을 살려 케이블 채널 패션앤의 패션·뷰티 프로그램 '팔로우미3'의 새 안방마님이 됐다. 아이비는 지난 21일 제작발표회에서 "블로그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가수 정준영은 자신의 블로그를 "편견을 깨는 로커의 클라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준영의 블로그는 그의 취미로 알려진 장난감·게임·축구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부터 직접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페이지까지 고독한 로커 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정준영은 진석심계란부터 볶고기, 짜파이 볶음밥 스파게티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해 초 KBS '1박 2일'에서 새해 소원을 "파워블로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블로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요리 과정을 모두 사진에 담아 올리는 그의 정성은 파워블로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지숙은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하다. 지숙은 '쑥스러운 쑥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이나 요리, 손글씨 등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그가 만든 핸드폰 케이스·셀프 네일 아트·각종 요리는 완성도가 매우 높아 블로그 방문자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1박2일 /KBS

최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귀여운 삼남매의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된 가수 슈는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녀들의 일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슈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 스타일링 페이지까지 개설해 센스 넘치는 엄마가 되는 비법을 공유하고 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지숙 /지숙 블로그

한편 블로그를 인기리에 운영하다 닫은 사례도 있다. 방송인 김나영은 패션 브랜드 '푸시더베툰'의 디자이너 박승건과 함께 패션 블로그를 운영했다. 평소 옷 잘 입기로 소문난 김나영은 블로그 운영을 바탕으로 케이블 채널의 패션 프로그램 MC까지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1월 예세이진 '마음에 들어' 출간과 동시에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을 삭제해 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김나영 블로그

/김지민기자 kmjkim@metroseoul.co.kr

엑소, 크리스 없이 콘서트

멤버의 소속 분쟁을 겪은 엑소가 11명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엑소 홈페이지에 "23~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11명이 펼친다. 현재 멤버들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어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엑소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는 전속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12인조인 엑소는 이번 콘서트부터 당분간 11인조로 활동할 예정이다.

SM은 "크리스 측은 소송 제기 이후 연락 두절 상태이며 변호사 역시 (공연)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11명으로 콘서트의 모든 부분을 변경해야 해 멤버는 물론 스태프도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n@

악동뮤지션 "우리도 YG패밀리"

서울 합동공연 합류… 윈 B팀도 출연

을 이름을 뜨겁게 달굴 'YG패밀리 콘서트' 서울 공연에 이하이·B팀·악동뮤지션(사진)이 합류한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2일 앞서 패밀리 콘서트의 라인업으로 공개한 빅뱅, 2NE1, 싸이, 에픽하이, 위너 외에 추가 라인업을 발표했다.

YG는 8월 15~16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릴 YG패밀리 투어 서울공연을 세계적인 팝 아이콘 레이디 가가 콘서트와 함께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이라는 이름을 걸고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런웨이 넘어 안방까지 넘본다

이소라·장윤주·송경아·한혜진 톱모델 예능 프로그램 맹활약

최근 패션쇼 무대를 벗어나 안방극장 문을 두드리는 모델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슈퍼모델로 활동했던 이소라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방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SBS 생방송 '한밤의 TV 연예'의 MC로서 오랜 시간 진행 능력을 뽐내왔다.

MC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소라는 패션모델이라는 본업을 바탕으로 온스타일의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4개 시즌을 모두 이끌었다. 특히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패션 세계는 냉정하다.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디자인은 외면당한다" 등의 고정 멘트로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최근 이소라는 SBS '룸메이트'에서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에 게스트로 출연해 뛰어난 예능감을 보인 장윤주 역시 모델 경험을 바탕으로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의 진행을 맡은 바 있다. 장윤주는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만든 자작곡으로 음반 발매까지 한 가수이기도 하다. 다재다능한 그는 현재 KBS 2FM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의 DJ로도 활약 중이다.

세계 패션 무대를 주름잡았던 톱모델 한혜진과 송경아는 최근 방송가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한혜진은 JTBC '마녀사냥' 2부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며 신동엽·성시경을 압도하는 입담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송경아 /티캐스트

한혜진 /JTBC

이소라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

장윤주(오른쪽) /옥탑방 라디오

송경아는 2007년 엠넷 '트렌드 리포트 필'을 시작으로 현재는 패션앤 '팔로우미3'에 이르기까지 패션·뷰티 프로그램의 멘토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 웹툰 작가로도 데뷔할 만큼 그림실력을 갖춘 송경아는 현재 배우 정려원과 함께 스토리온 '히트스타 코리아'의 MC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경아는 지난 21일 '팔로우미3'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모델의 방송 활동에 대해 "자극도 되고 기분도 좋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지민기자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성훈·추사랑 /KBS 제공

SBS '오 마이 베이비' 김소현·주안 /SBS제공

넘쳐나는 육아 예능 정체성 흔들

'슈퍼맨' '오마베' 아류 논란 여전

안방의 스테디셀러인 육아 예능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육아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MBC '아빠! 어디가?'는 윤후·성준 등의 꼬마 스타를 배출하며 방송가의 주목을 받았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와 SBS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는 아류 논란을 겪으면서도 소폭의 차별화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류 논란에도 육아 예능이 재생산되는 배경을 "새로운 캐릭터를 지닌 어떤 아이를 보고 싶은 대중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프로그램은 방송을 거듭할 수록 불분명한 콘셉트로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슈퍼맨'은 출연진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자주 담는다. 특히 제주도 여행 편에선 출연 자녀들의 엄마까지 합류해 가족판 '아빠! 어디가?'를 떠오르게 했다. 이는 출연자 간 친목 도모와 반복이 주는 무료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소재는 "여행 같은 일회성 설정이 아닌 일상을 담고 있다"고 '아빠!어디가?'와의 차별점을 강조한 강봉규 PD의 말을 무색하게 한다.

'오마베'는 SBS '자기야-백년손님'(이하 '자기야')과 '슈퍼맨'을 떠오르게 한다. '자기야'는 장서 부부 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오마베'에 출연하는 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재가 부부인지 육아인지 불분명해지고 있다.

올 3월부터 수요일로 시간대를 옮긴 이 프로그램은 방송 초기 황혼의 육아를 내세우며 개성 있는 육아 예능임을 표방했다. '슈퍼맨'과의 가장 큰 차이였다. 그러나 현재 '오마베'에선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신 젊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네 가족의 생활만 보여질 뿐이다.

평론가 정덕현씨는 "육아 예능이 부부와 아이를 포함한 출연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점차 모호해진다"고 분석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구하라의 여름패션 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여름 더위를 식힐 화려한 여름 패션을 선보였다. 그는 패션지 코스모폴리탄 6월호에서 발리의 수영장과 열대정원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섬머 룩을 공개했다. 평소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다른 건강미 넘치는 무대로 변신 매력을 선사했다. /사진=조기자 suno@

'나인' 흥행 '삼총사'로 잇는다

송재정 작가·김병수 PD 다시 맞손

지난해 인기를 모으며 케이블 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나인'의 송재정 작가와 김병수 PD가 다시 한 번 뭉친다.

tvN '삼총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소현세자와 그의 호위무사 허승포·안민서, 가난한 집의 양반 출신으로 한양에 올라와 무과에 도전하는 박달향이 조선과 청나라에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릴 예정이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를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은 앞서 '인현왕후의 남자' '나인:아홉 번의 시간여행'을 통해 마니아층을 거느린 송 작가와 김 PD가 의기투합한 세 번째 작품이다.

시즌 마다 12개의 에피소드로 총 3 시즌으로 제작될 예정인 '삼총사'는 '쪽대본'이 난무하는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보기 드문 계획된 시즌제라는 점에서 드라마 팬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영규 CJ E&M CP는 "계획된 시즌제는 기존의 드라마 제작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다양한 기획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단계에서 세 개의 이야기 구성을 짜놨으며, 두 번째 시즌은 중국 로케이션을 검토 중이다. 배우들 역시 세 개의 시즌을 모두 함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재정 작가(왼쪽) 김병수 PD

CJ E&M에 따르면 첫 번째 시즌은 올 8월 방송 예정이며 캐스팅을 확정짓는 대로 다음 달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학선기자 hak@

강우 '박해진 브랜드' 모델 발탁

선예 강우(사진)가 박해진의 중국 패션브랜드 '브이모딘'의 모델로 발탁됐다. '브이모딘'은 박해진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중국 패션 기업 마크장과 론칭한 브랜드다.

강우는 이달 말 '브이모딘'의 모델로서 지면·동영상 광고 촬영을 진행하며 의상은 7월 8일 처음 출시될 예정이다. 22일 강우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 측은 "소속사 선후배로 우정을 다져온 강우와 박해진이 각각 모델과 디자이너로 만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우는 184cm의 큰 키에 소각 같은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귀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외모까지 갖춰 '브이모딘'의 모델로 발탁됐다.

같은 소속사 선배인 박해진의 도움도 상당했다. 강우는 1년 동안 박해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쇼핑 등 일상을 함께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당시 박해진은 강우의 매력을 알아채고 마크장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로 발탁된 강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훌륭한 배우가 돼 보답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전효진기자

하지원 할리우드 진출 타진

20세기폭스 제프리 갓식 사장과 회동

배우 하지원(사진)이 할리우드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22일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지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20세기폭스의 제프리 갓식 사장과 만나 할리우드 진출에 대해 논의했다.

20세기폭스 측은 이번 만남에서 하지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을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하지원의 차기작인 영화 '허삼관매혈기'의 촬영이 끝나는 올 가을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도 기황후 촬영이 늦어져 일정을 연기한 것을 갓식 사장이 기다려 성사됐다.

20세기폭스 측은 하지원의 뛰어난 액션과 연기력,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원은 드라마 '다모' '시크릿 가든', 영화 '형사 듀얼리스트' '조선미녀삼총사' 등으로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또 '황진이' '발리에서 생긴 일',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에서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지난달 종영한 MBC '기황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 드라마의 흥행을 이끌었다.

한편 하지원은 갓식 사장과 만난 직후 LA다저스 구장을 함께 방문해 괴물 투수 류현진도 만났다. 현재 기황후를 마치고 휴식 중인 하지원은 다음달 초 배우 하정우가 감독하는 '허삼관매혈기' 촬영에 들어간다.

/박선희기자 isk1427@metroseoul.co.kr

강동원 '아름다운 악역'

'군도' 탐관오리 스틸 공개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 출연하는 강동원(사진)이 아름다운 악역을 선보인다.

배급사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는 '군도'에서 악역 조윤을 연기한 강동원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스틸을 22일 공개했다. 칼을 높이 든 채 등 뒤의 적을 매섭게 노려보는 모습은 아름다움과 우서움이 공존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윤은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대감의 서자이자 조선 최고의 무관이다. 아버지에게 인정 받지 못한 한 때문에 야백지했다 더 극악무도한 수법으로 양민을 수탈하며 삼남지방 최고의 부호로 성장한다.

강동원은 극중 의적인 군도 무리에 맞서기 위해 고난도 액션을 소화했다. 제작진은 강동원의 유연하고 우아한 동작에 맞춰 평균보다 훨씬 긴 사이즈의 장검을 특수 제작했다.

연출자 윤종빈 감독은 "강동원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좋았다. 서늘하면서도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이는 그의 이미지가 조윤에 녹아 있어 좋았다"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역 캐릭터의 멋있는 부분은 다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정우와 강동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는 '군도'는 양반과 탐관오리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0년을 배경으로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의적 무리 군도의 활약상을 그렸다. 7월 23일 개봉. /박선희기자

비욘세·제이지, 1조원 이혼소송설

"파경 이유 남편 외도" 추측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제이지 부부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50억원)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잡지 라이프앤스타일은 "비욘세와 제이지가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며 이혼설을 제기했다. 이 잡지는 10억 달러의 재산 분할 소송과 지난해 출산한 딸 블루 아이비의 양육권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제이지의 외도가 비욘세의 질투심을 자극했다"며 파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비욘세와 제이지는 다음달 미국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합동 투어인 '온 더 런' 을 펼칠 예정이다.

잡지는 부부가 결별 소식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최근 함께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박선희기자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혼설을 보도한 미국 잡지 라이프앤스타일의 표지

비욘세(가운데)-제이지(왼쪽) 부부 /뉴시스

'봄' 밀라노 국제영화제 대상

한국영화 최초… 여우주연·촬영상까지

영화 '봄'(사진)이 제14회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다.

전 세계 12편의 영화가 경합을 벌인 결과 '봄'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대상을 수상한 건 처음이다.

대상은 영화제에 참석한 관객의 투표로 결정됐다. 이 영화제는 각본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의 표를 얻은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봄'은 대상에 앞서 여우주연상(이유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안드레아 칼란데는 "아름다운 영상, 음악, 시나리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극찬했다.

'봄'은 한국전쟁 직후인 1960년대를 배경으로 몸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에 걸린 천재 조각가(박용우)가 생애 마지막 모델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국내에는 올 하반기 개봉한다.

영화제 측은 11월 개막할 아메리칸필름마켓 기간에 미국 LA의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대상작 특별 상영회와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박선희기자

안시 질환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전기운동을 특해 혀번 신할 단련해야 합니다. 또 전신욕 또는 반신욕으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많던 건물들은 다 어디에?

권기봉의 **도시산책** <45>

서울 경복궁을 거닐 때면 의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한 때 건물들로 빽빽했다는 경복궁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서다.

경복궁이 대대적으로 망가진 것은 지난 16세기말 임진왜란 때였다.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간 직후 백성들에 의해선지 왜군에 의해선지 주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홀랑 불에 타버린 것이다.

이후 27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경복궁을 다시 지은 것은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또 수난의 시대가 찾아 온다. 조선을 강제병합한 일본이 경복궁에서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라는 일종의 '엑스포'를 연 탓이다. 엑스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 1925년 조선가금공진회, 1926년과 29년에는 조선박람회가 연거푸 개최됐고 1935년에는 조선산업박람회까지 열렸다.

구한말 당시 경복궁의 건물 수는 모두 509동이었으나 엑스포를 구실로 90% 이상이 헐리고 말았다.

해체한 뒤에도 재조립이 가능하다는 목조건물의 특성상 헐린 전각들은 요정이나 사찰, 개인집으로 팔려나갔다. 집현전의 후신이랄 수 있는 '홍문관'은 남산으로 팔려가 '화월별장'이라는 요정으로, '비현각'은 장충동으로 옮겨져 '남산장'이라는 요정으로 이용되는 식이었다.

세자와 세자비의 생활공간인 '자선당'의 운명은 더 처연하다. 1915년 일본 도쿄로 옮겨졌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불타버리고 말았다. 지금 현재 경복궁 동북쪽 귀퉁이에 놓여있는 돌무더기가 바로 1996년 일본에서 환수해온 자선당 석축이다.

2014년 5월 현재 경복궁에선 수라간 등 일제 때 헐려나간 시설들을 다시 짓는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헐린 궁을 다시 짓는다고 비운의 역사가 극복되고 옛 영화가 되살아날까? '문화재 복원'이란 미명 아래 사라진 건물을 재건하려 서두르기에 앞서, 지도자들이 무능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곱씹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6
	7				5	9		4
	9	5	4		1	2		
			8					9
		4				6		
9					2			
		9	3		7	8	4	
3		1	5				9	
2				1		5		

스도쿠 정답

	4	8						
	1		9	8	3	4		
2			4					
5				7		1	4	
7			1		6			3
	3	6		5				2
					9			4
		2	5	4	7		6	
						5	7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시 스도쿠 라이타드 (아이콜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건강식품 영업직, 건강 걱정이 작업 전환하면 다소 나아질듯

hynin 남자 61년 10월 12일 유시 저녁때

Q 메트로 신문으로 출근을 시작하는 54살 주년남자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김상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국언화에 게 판매하는 소위 방문판매 영업직 사원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저의 건강이 어떤가요.

A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같은 형상으로 활동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합니다. 사주용어로 상관이 강해서 말고 그릇이 선명한데 이는 사회생활에 오히려 그로인한 화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에게도 내심을 보이지 않기만 대인관계에서 적응이 참이 불리하여 평탄 직장 다니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연을 한다고 잘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점을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참고 하신시오. 건강상으로는 신장이 약하여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면이 있으니 방문판매에서 성과를 내거나 무리한 실적내기위한 시간과 금전에 무리가 없도록 하세요. 7월 이후 작업을 전환 하시면 다소 나아 질것입니다.

3살아들 진로와 건강 어떤지 '인간사 새옹지마' - 잘 새기도록

복사치 남자 12년 1월 28일 유시 새벽

Q 이제 3살 아들인데 잘 놀고 있습니다만 아이이 의견과 적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잘 될지 궁금합니다. 사주에 따른 적업성을 찾아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 자꾸 여우에 부담이 됩니다. 공부는 잘 할 수 있는지요. 건강상의 주의점도 알려 주세요. 1월28일 음력 새벽 첫닭 울 때가 생일 입니다.

A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어느 날 변방에 사는 노인이 기르는 말이 도망갔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말은 다른 말을 이끌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축하를 하자 노인은 이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느냐는 것이다. 그 말처럼 새로 생긴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노인은 크게 안타까워 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전쟁이 벌어졌다. 동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끌려갔지만 다리를 다친 아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유명한 새옹지마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떤 일도 나쁘기만 하지 않으며 어떤 행도 꼭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23일 음 4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험에가 울리기는 날이다. 60년생 능력 밖의 일은 벌이지 말라. 72년생 방심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84년생 주말 데이트 계획에 신나는 하루~

소: 49년생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61년생 어려움은 있으니 귀인이 나타난다. 73년생 운기가 집하니 금전 위주로 생각하라. 85년생 담담한 마음은 꼭 풀린다.

호랑이: 50년생 사소한 근심이 생긴다. 62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 놓칠 수도. 74년생 겸손하면 도우미가 몰려든다. 86년생 묻은 알리니 일단 두들겨 보라.

토끼: 51년생 분해도 작은 것에 연족할 것. 63년생 고난의 끝자락이 보인다. 75년생 자신이 있어도 너무 나가지 말라. 87년생 고가를 구입하면 속고 산 기분이 든다.

용: 52년생 뜻밖의 익재 뒤든 하루 보낸다. 64년생 상담할 땐 거선제압부터 하라. 76년생 혹박한 일에 실 용이 생겨 즐긴다. 88년생 기난해도 곧은 재벌처럼 꾸라.

뱀: 53년생 젊은에 곳목꽃이 활짝~ 65년생 최선 다하면 건월한 기도는 이뤄진다. 77년생 잘대단 따박따박 해도 후배가 좋구나. 89년생 모임에 가면 얄궂은 사람 만난다.

말: 42년생 목돈 지출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정상에 올랐으면 내려갈 준비하라. 66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무거운 짐 벗는다. 78년생 술로 인한 실수를 조심할 것.

양: 43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 아껴라. 55년생 북우지의 모지역 동반외출이 즐겁다. 67년생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피하라. 79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 나타난다.

원숭이: 44년생 고집부리면 손해 본다. 56년생 여유가 있을수록 분수 지켜라. 68년생 생각도 못한 사람이 걱정거리 해결해 준다. 80년생 새롭게 추진한 일은 순조~

닭: 45년생 티가 나도 감정조절 잘 처리. 57년생 물외에 타협하면 나중에 광을 친다. 69년생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라. 81년생 시작보단 마무리가 중요하다.

개: 46년생 뜻밖의 소득에 즐겁다. 58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싸움은 절대 피하라. 70년생 저유은 힘이 드나 갈수록 좋아진다. 82년생 이성의 선물은 웃어긴 척 받아라.

돼지: 47년생 사사에 너무 가리지 말라. 59년생 고난이 끝나고 편안함이 찾아온다. 71년생 자부심을 가지도 할 처사가 생겨 애초~ 83년생 자존심 세우면 손해 본다.

돌아온 '류' 역시 '괴물'

24일 만에 등판 꿀맛 4승… 다저스 선발진 완성체 구축

류현진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가뿐한 복귀전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시즌 4승을 올렸다.

류현진은 22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했다. 6이닝을 2실점으로 틀어막고 4승을 위한 승리요건을 모두 갖춘 채 브랜든 리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6이닝 9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에 최고구속은 94마일(약 151km)까지 나왔다. 던진 공은 85개다.

류현진의 복귀전에 팀 동료들의 지원도 한몫했다. 솔로포 3개를 기록한 타선과 불펜이 류현진의 승리를 도왔다. 2회에는 애드리언 곤잘레스가 솔로포로 선취점을 뽑았다. 1-0의 아슬아슬한 리드가 계속되던 6회엔 푸이그와 핸리 라미레스의 백투백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3-0을 만들었다. 류현진이 6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3-2 살얼음판 리드를 유지했으나 8회 2사 두수앞 땅볼로 귀중한 추가 득점을 올리며 4-2로 점수차를 벌렸다.

다저스는 7회 브랜든 리그, 8회 브라이언 윌슨, 9회 켄리 잰슨이 메츠 타선을 막았다. 잰슨이 9회 추인 리가레스에게 3루타를 허용한데 이어 대니얼 머피의 2루 땅볼로 한 점을 허용했지만 승부는 뒤집히지 않았다.

시즌 4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오늘 등판하기 전에 승패보다는 몸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게 관건이었다"며 "일단 통증없이 던진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볼도 많이 없었고 신두도 그리 끌지 않았다. 20여일 만에 등판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런 제구력이었다"고 자평했다.

류현진의 화려한 컴백으로 다저스 마운드는 막강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다. 시범경기에서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던 2선발 잭 그레인키가 선발 출전은 하지 못했다. 이어 클레이턴 커쇼가 어깨와 팔쪽을 잇는 근육을 다쳐 부상자명단에 올랐다. 커쇼가 6주간 결장한 후 지난 7일 복귀하자 그에 앞서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다저스의 1·2·3선발이 함께 로테이션을 꾸리는 것은 이번 시즌 처음이다. 류현진의 뒤를 이어 조시 베켓과 댄 해런이 4·5선발을 맡는다.

다저스의 선발진이 갖춰진 만큼 4경기차이로 앞서 있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향한 추격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윤정운기자 ysw@metroseoul.co.kr

추신수 시원한 결승 홈런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2·사진)가 시즌 5호 홈런을 날렸다.

추신수는 2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애틀 매리너스의 경기에서 3-3이던 5회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텍사스는 이 점수를 잘 지켜 4-3으로 이겼다.

이날 추신수는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1사구를 기록했다. 이번 홈런으로 추신수는 타율을 0.302에서 0.310(142타수 44안타)으로 끌어올렸다.

프린스 필더의 부상으로 4경기 연속 3번 타자로 나선 것을 두고 그는 "1번 타자로서의 부담감, 3번 타자로서의 부담감이 각각 다르지만 이전 팀에서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낯선 느낌은 없다"며 "타순에 상관없이 내가 해오던 대로 타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부상 동료가 많은 상황에서 승리를 이끄는 홈런을 쳐 기분이 좋다"며 "원정 11연전을 떠나는데 오늘 승리를 계기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월드컵 대표팀 단복 공개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공식 단복을 입고 국가대표의 위용을 드러냈다.

대표팀은 22일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공식 단복 '프라이드 일레븐'을 공개했다. 선수들이 결전지에서 이동할 때 입을 이 단복은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가 제작했다.

단복은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개별 선수들의 체형에 맞춰 치수를 정했다. 특히 일반인보다 허벅지가 굵고 허리가 얇은 특성을 살려 각자 지닌 체격의 매력을 발산하도록 디자인됐다.

월드컵 기간에 대표 선수들은 정장을 입고 장거리를 이동한다. 이에 따라 단복은 장거리 비행 때도 편안함 못지않은 신축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졌다. 젊은 선수들이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습관을 고려해 상의에 이어폰 구멍도 별도로 만들었다.

상의 안쪽의 아랫부분에는 홍명보호의 구호인 '원팀 원스피릿 원골(One team One spirit One goal·한 팀은 같은 정신력을 지니고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이 새겨졌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과 스태프가 단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하나의 팀이 된 것 같다"며 "편안하고 세련된 단복을 입고 출정하는 만큼 경기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승리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윤석민 2승 눈앞서 무릎부상

4이닝 2실점 후 교체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에서 선발로 뛰는 윤석민(28)이 타구에 왼 무릎을 맞아 교체됐다.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BB&T 볼파크에서 열린 샬럿 나이츠와 경기에 선발등판한 윤석민은 4이닝 2피안타 2실점 1탈삼진의 호투를 펼쳤다. 미국 진출 후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했던 윤석민은 5회 말 첫 타자 맷 데이비슨의 타구에 왼쪽 무릎을 맞고 닉 에디턴으로 교체됐다.

1이닝만 더 막았으면 시즌 2승을 챙길 수 있었지만 아쉽게 마운드를 내려왔다. 승수는 챙기지 못했지만 평균자책점을 7.00에서 6.75로 낮춘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노포크는 이날 13안타를 몰아치며 10-3으로 승리했고, 윤석민에 이어 등판한 에디턴이 승리투수가 됐다.

윤석민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부상 부위 사진을 공개하며 "타구맞고 5분 후 두경(무릎 앞쪽)은 희했네요. 이마 내일이 되면 부기와 멍이 엄청 커질 듯"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

/윤석민 트위터

프로야구 전적

■ 대구

팀				계
롯데	200	001	002	5
삼성	002	120	01X	6

■ 목동

팀				계
한화	000	505	311	16
넥센	000	200	001	3

■ 광주

팀				계
LG	032	132	001	12
KIA	001	000	212	6

■ 마산

팀					계
SK	100	000	010	1	3
NC	100	000	010	0	2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